

목차

[Phase.0] 새벽의 여로, 미지의 녹색 바다로	1
[Phase.1] 거친 야수와 부드러운 주먹, 그리고 비오는 밤	5
[Phase.2] 소녀로부터 소년으로의 강초의 추억	7
[Phase.3] 금단의 야외 배변	9
[Phase.4] 심록의 미궁, 조용한 시련의 개막	11
[Phase.5] 보물 상자 트랩 죄송합니다! 금적 펀치!	14
[Phase.6] 좌악	19
[Phase.7] 미궁의 각성과 맹렬한 편의	22
[Phase.8] 편의를 참으면서 한계 배틀	25
[Phase.9] 변의 봉인 강초	27
[Phase.10] 기절! 칸초되면서 전투	29
[Phase.11] 멈추지 않는 배변 쇼	31
[Phase.12] 오욕의 끝의 고요함, 그리고 소년의 거절	33
[Phase.13] 외로운 미로, 후회의 나머지 향	35
[Phase.14] 마루 삼키기 슬라임 소년 항문 능욕	38
[Phase.15] 조사에 배꼽 뺑되어 슬라임 강제 배출	41
[Phase.16] 거절의 교지, 흔들리는 미궁의 주종	44
[Phase.17] 매혹의 마도 키친, 굴욕의 미식 시간	46
[Phase.18] 심연의 최심부, 잠자는 미소년과의 邂逅	48
[19단계] 항문 방어	50
[Phase.20] 성역의 관측자, 날뛰는 천재의 비밀	53
[Phase.21] 별해로의 문	55
[Phase.22] 거절의 포효, 천재 소년의 지극히 정당한 정론	57
[Phase.23] 강제 사출, 은하에 울리는 천재의 비명	58
[Phase.24] 은하의 유전, 표류하는 눈물과 오욕의 세척	60
[Phase.25] 우주의 공평성과 천재 소년의 혈 눈물	62
[Phase.26] 은하의 미아, 혹은 강제적인 성간 표류	64
[Phase.27] 은하급 스트레스와 변비 소년의 치욕	65
[Phase.28] 강제 노출과 특제 글리세린 관장	67
[Phase.29] 우주에서 배변 인내	69
[Phase.30] 악마의 무중력 니드롭 강제 배설	71
[Final Phase] 은하의 끝의 약속과 멈추지 않는 복음	73
[다음] 작가 유즈카 마유	74

다이아몬드 아카데미의 거대한 교문이 배후에서 중후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학원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 명의 탐사자로서, 크레스트는 지금,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고 있다.

瑠璃色の 케이프가 미풍에 휘어 그 아래 타이트한 반바지에 싸인 몸집이 작은 다리가 한 걸음씩 확실한 발걸음으로 흙을 차기.

옆을 걷는 것은 남색의 트윈 테일을 경쾌하게 연주하고 있는 소녀 윤아다.

그녀는 마치 피크닉에도 가는 듯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끔 콧노래를 부르면서 숲 깊숙히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봐, 크레스트. 보고 보고, 저기서 본 적도 없는 색의 나비가 날고 있어♪」

윤아가 가리키는 곳에는 인광을 내며 춤추는 이상한 나비의 모습이 있었다.

「... ... 아, 저것은 환광 나비구나.

크레스트는 냉정하게, 그리고 평소와 같이 조금만 이굴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그의 보라색 눈동자는 주위 환경을 항상 스캔하고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해를 계속 찾고 있다.

학원 제일의 두뇌라고 불리는 그에게 있어서 여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또 프라이드이기도 했다.

「아하는, 여전히 꿈이 없구나. 모처럼의 대모험이니까, 더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즐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을 뿐. 그것도 즐겁고"

크레스트는 그렇게 말하면서, 수중의 마도 단말을 조작해 현재지와 목적지의 거리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단단하다.

그것도 그럴 것, 그는 방금전부터 옆을 걷는 윤아의 움직임에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 그녀로부터 받은 그 집요, 그리고 도망칠 곳이 없는 '교육'의 기억이 문득 한 순간에 뇌리를 뒤흔든다.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임무중이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크레스트는 딱 서있는 진홍의 고양이 귀를 희미하게 떨렸다.

에메랄드 포레스트의 심부는, 외연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몇 층에도 겹친 나무의 잎이 태양의 빛을 복잡하게 굴절시켜, 지상에는 환상적인 기하학 모양의 그림자를 떨어뜨렸다.

자, 잣, 풀을 밟는 소리가 조용한 숲의 공기에 녹아 간다.

「후후, 크레스트라고 하면 조금 전부터 꼬리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

윤아가 갑자기 얼굴을 다가가 들여다보듯 웃었다.

「뭐, 뭐라고 하는 거야! 나가 그런 비논리적인 감정에 지배되는 것은 없지요!」

「에—, 정말로?

「뭐...

얼굴을 새빨갳게 하고 반론하는 크레스트의 모습은, 윤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의 호물이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즐길 수 있도록 일부러 가까이 다가오고, 유연한 손가락 끝으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찔렀다.

「아하는, 농담이야♪ 하지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막상이라고 할 때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버릴거야?」

「...

크레스트는 작고 한숨을 쉬고 흐트러진 케이프를 정돈했다.

확실히 윤아의 신체 능력과 전투 센스는, 학원에서도 군을 뽑고 있다.

그녀가 있으면 어떠한 강적이 나타나도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이 자신을 향해 졌을 때의 공포를, 그는 싫다는 정도 알고 있었다.

(진정해.....

숲의 안쪽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기의 습도가 올라 농후한 흙과 녹색의 향기가 폐를 채운다.

때때로, 먼 쪽에서 정체 불명의 마수의 포효가 들려 오지만, 두 사람은 겁없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이봐, 크레스트. 저기의 바위 그늘에 뭔가 떨어지고 있어. 저기, 마도구의 파편일까?」

윤아가 가리키는 곳, 이끼 낸 대암의 그늘에 둔한 은빛의 빛을 발하는 물체가 있었다.

".....어디. 분석해볼게"

크레스트는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며 해석용 렌즈를 장착하여 그 물체를 관찰했다.

「이것은... ... 고대의 통신 장치의 부품이군.

「헤에—, 역시 크레스트는 모르겠네! 나에게는 단지 반짝반짝 쓰레기밖에 보이지 않아♪」

윤아는 굴탁이 없는 미소로 그렇게 말해, 크레스트 옆에 허리를 내렸다.

「쓰레기다니. 이것은 역사적인 발견이 될지도 모른다. 소중히 보관해 두지 않으면」

「그럼, 그것은 크레스트의 배낭에 넣어 두어. 내 배낭, 과자로 가득하니까♪」

「... ... 너는 정말로...

어리석은 듯 어깨를 으쓱하는 크레스트였지만, 그 마음은 조금만 가벼워지고 있었다.

윤아의 순진한 언동은 그의 긴장을 풀어내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언제 송곳니를 베킬지 모른다고 하는 위험은 항상 붙잡혀 있는데.

저녁이 다가오고 숲의 색채가 깊은 오렌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시야가 조금씩 제한되어 간다.

"이봐, 윤아? 이제 야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더 어두워지면 결계 설치도 어려워지고"

「그렇네♪ 그럼, 장소는 저기의 광장으로 할까. 지면도 평평하고, 전망도 좋을 것 같아」

윤아가 가리키는 장소는 큰 고목 뿌리에 있는 원형의 열린 공간이었다.

「...」

「양해야, 리더♪ 맛있는 저녁밥을 기대하고 있어!」

윤아는 즐겁게 대답을 하고, 짐을 내리면서 제대로 준비를 시작했다.

크레스트도 마도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한 걸음씩 지면에 마법 문자를 새겨 간다.

「...」

밤의 책이 내릴 무렵, 작은 모닥불 주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패치, 패치, 와 폭발하는 불분이, 밤의 어둠에 흡입되어 간다.

「...」

「응, 기다려지♪ 어떠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가 너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스트는 모닥불을 바라본 채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아하는, 걱정해 주고 있는 거야? 기뻐요, 크레스트♪」

윤아는 그렇게 말하고 크레스트의 가는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맡겼다.

따뜻한 체온이 케이프를 넘어 전해진다.

크레스트는 일순간 몸을 강장시켰지만, 곧바로 그 긴장을 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금은 아직 광기의 그림자도 이성을 부수는 쾌감도 여기에는 없다.

단지 조용한 숲의 밤과, 신뢰해야 할 (그리고 무서운) 파트너가 있을 뿐이었다.

「... ... 잘자, 윤아」

「잘자, 크레스트. 내일도 많이, 귀여워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들린 불온한 말에, 크레스트의 꼬리가 피크리와 뒹였지만, 그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긴 여행의 1일째는 조용히 돌아갔다.

# [Phase.1] 거친 야수와 부드러운 주먹, 그리고 비오는 밤

이튿날 아침. 에메랄드 포레스트의 심부는 아침 이슬에 젖은 녹색 향기와 함께 그 표정을 일변시키고 있었다.

나무들의 틈에서 쏟아지는 햇빛은 아름답고, 언뜻 보면 온화한 아침에 보이지만, 크레스트가 가진 마도 센서는,

주위에 숨어있는 무수한 거친 생명 반응을 포착하고 있었다.

「...」

크레스트는 진홍의 고양이 귀를 딱 세워 주위의 소리에 신경을 뽕족하게 한다.

「아하, 괜찮아요 크레스트♪

윤아는 여유의 미소를 짓고 준비운동이 되면 유연한 사지를 크게 늘렸다.

그 직후였다.

갓살이라는 격렬한 소리와 함께 덩불에서 거대한 황금의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근골 능숙한 체구를 가진, 이 숲의 왕——야생의 사자다.

더욱 반대쪽의 나무 위에서는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호랑이가 배후에서는 바위 같은 체구의 곰과 위압감 넘치는 고릴라까지도, 밧줄을 침범하는 침입자를 배제하지 않고 일제히 덮쳐왔다.

「흠...

「필요 없어, 그런거야♪ 자, 모두들, 잘 지내라!」

윤아의 눈동자가 먹이를 노리는 파이터로 바뀐다.

그녀는 크레스트의 앞에 뛰어들자, 우선은 날아 온 라이온의 송곳니를 종이 일중으로 피해, 그 거대한 앞발을 취했다.

「네, 하나!」

바키바킷이라는 둔한 소리가 울린다.

윤아는 라이온의 거체를 가볍게 던져 날려 머릿속 넣지 않고 습격하는 호랑이의 회에 잠입했다.

흐르는 듯한 움직임으로 호랑이의 배후를 취하면, 그대로 억지로 수원을 다해, 지면으로 두드린다.

굉장한 충격음이 숲에 울려 땅이 크게 흔들렸다.

「다음은 곰씨와 고릴라씨군요♪」

윤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돌진해 오는 곰의 팔을 엮히고, 관절을 역방향으로 고정하고 비명을 올리자, 마지막은 양팔을 휘둘러 위협하는 고릴라의 밑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래!」

그녀의 얇은 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력이 폭발하고 거체의 고릴라가 무사히 뒤집힌다.

윤아는 쓰러진 동물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 일시적인 운동 능력의 상실을 일으켰다.

물건의 몇 분. 숲의 맹자들은 윤아의 발밑에서 무사히 손발을 휘젓는 만큼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아... ... 하아...

크레스트가 달려와 거친 숨을 쉬면서 윤아를 멈춘다. 크레스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도망치는데 숨을 끊고

있던 것 같다.

「에—, 더 놀아 줘도 좋지만♪」

"안돼. 그들에게 나를 해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의 폭력은 필요 없어. 그들도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니까.

크레스트의 말에, 윤아는 「치에—」라고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올리면서도, 곧바로 미소로 돌아왔다.

「그렇네, 크레스트가 그렇게 말한다면 용서해 준다♪ 바이바이, 다음은 좋게 하는 거야?」

윤아가 가볍게 손을 흔들자, 다들 몸으로 숲 안쪽으로 도망가는 동물들을 배웅해 두 사람은 다시 걸어 나갔다.

하지만, 모험의 시련은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낮이 지나서 급격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축축한 바람이 피부를 쓰다듬는다.

「...」

크레스트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과 동시에, 굵은 물방울이 포츠리, 포츠리와 쏟아졌다.

「저기, 모처럼의 모험인데, 비쇼비쇼가 되어버릴게」

"급히 비를 내리는 곳을 찾자. 나의 계산이라면, 앞의 암벽에 동굴이 있을 것이다"

격렬함을 늘리는 비 속에서 두 사람은 발밑에 조심하면서 진흙 길을 갔다.

瑠璃色の 케이프도 복숭아색의 블라우스도 가차없이 쏟아지는 비에 젖어 피부에 붙어 간다.

마침내 찾은 것은 절벽 절벽의 기슭에있는 작지만 깊이있는 동굴이었다.

「후우...」

크레스트는 동굴 입구에서 흠뻑 젖은 반바지를 짜면서 한숨을 쉬었다.

「진짜구나♪ 하지만, 비 속의 모험도, 왠지 두근두근 해버린다」

윤아는 젖어 비쳐 보이게 된 블라우스를 신경 쓰는 모습도 없고, 즐겁게 동굴 속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두근두근이 아니고, 감기를 당기지 않을까 걱정이야. ... ... 우선, 불을 일으켜 옷을 말리지 않으면」

좁은 동굴 속, 크레스트가 마법으로 만들어낸 작은 불꽃이 바위 피부를 붉게 비추어낸다.

밖에서는 격렬한 비오는 소리가 고워...

"이봐, 크레스트. 이렇게 두 사람만으로 노주쿠는, 왠지 학원의 기숙사에 있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네"

윤아가 모닥불 옆에 무릎을 안고 앉아서 불길을 바라본다.

「...」

크레스트는 젖은 채로 고양이 귀를 파타파타와 움직이면서 대답했다.

「후후, 역시 크레스트는 멋지네♪ 하지만...

윤아가 웃기고 사디스틱한 빛을 담은 눈동자로 크레스트를 바라본다.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하룻밤 보내는 걸.

「... ... 웬!

크레스트는 얼굴을 붉게 하고, 소소함과 짐의 그림자에 숨기도록 누워 있었다.

격렬한 비오는 소리와 딱딱하고 폭발하는 불의 소리.

야생의 위협을 물리친 후의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밤이 천천히 지나간다.

## [Phase.2] 소녀로부터 소년으로의 강초의 추억

동굴 안쪽에 규칙적인 침식이 작게 울리고 있다.

모닥불의 주홍빛이, 둥글게 자는 크레스트의 등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瑠璃色の 케이프는 바위 피부에 걸쳐 있으며, 지금 그는 얇은 유니폼 셔츠와 타이트한 검은 반바지 모습이다.

무방비에 돌출된, 작고 모양이 좋은 그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윤아는 무릎을 안고 조용히 사고를 돌렸다.

(...

윤아의 뇌리에 학원의 연습장이나 도서관에서의 광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그 때, 크레스트에 다한 초특대의 강초.

자신의 손가락이 그의 얇은 팬츠의 천을 넘어, 꺾 조여진 항문에 용서 없이 휘말려 갔을 때의 감촉.

손가락 끝이 제2관절, 그리고 뿌리까지 깊숙히 항문에 찔릴 때마다, 크레스트는 「하웃!?」 「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고, 학원 제일의 천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무고한 목소리를 울려 울고 있었다.

강도를 수만 배로 튀어 울려 손가락의 자극, 강초만으로 억지로 항문 절정되고 마지막에는 마도 글리세린 관장에서

머칠 분의 똥을 브리브리과 부티 뿌려 버린 그 굴욕의 순간.

프라이드가 높은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영혼을 깎을 수 있는 수치였음에 틀림없다.

(크레스트도 혼자 소년이야. 그렇게 엉덩이를 장난감으로되어 프라이드는 어렸을 것입니다. 귀엽기 때문에, 조금 괴롭힘 버렸을지도 .....)

윤아는 모닥불의 폭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조심에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서는 윤아가 크레스트를 압도해, 완전히 알 수 있었다고 소문되고 있다.

확실히 무술에 있어서는 윤아의 완승이었다.

근거리에서의 타격, 관절기, 그리고 필살의 강초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피지컬과 기술은 크레스트의 계산을 훨씬 웃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아 자신은 이해하고 있다.

그 승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특기 분야에 끌어들여 크레스트의 정신적인 취성을 철저히 공격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전쟁이나 대규모 마수 토벌이라면...

크레스트의 두뇌는 학원이 자랑하는 지보이다.

그가 냉철하게 전국을 추정해 정확한 지시를 날릴 때, 그 카리스마성은 윤아의 주먹보다 날카롭게 세계를 개척한다.

윤아는 그런 그의 '힘'을 누구보다 인정하고 있었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귀한 이성을, 자신의 손가락 두 개, 강초로 즈보와 파괴해, 향문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편의와 쾌락에 익사시키는 것에, 이상한 배덕적인 기쁨을 느껴 버린 것이다.

(응...

윤아는 부드럽게 손을 뺐어, 자고 있는 크레스트의 붉은 고양이 귀의 뿌리를, 손끝에서 상냥하게 쓰다듬었다.

삐쿵, 와 귀가 반응해, 크레스트가 잠언으로 「.....안돼,...

그 사랑스러운 반응에, 윤아의 가슴의 안쪽이 쿤과 알았다.

(적당히 괴롭히고 귀여워서,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은 계속하지만.하지만, 여행 중에는 제대로 동료로서, 최고의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자.그가 사령탑으로, 내가 그 검....

밖의 비오는 소리는 여전히 격렬하게 암벽을 두드리고 있다.

윤아는 크레스트의 옆에 잠입해 그의 엉덩이를 살짝 안아주도록 하고 누워 있었다.

내일 아침, 그가 깨어나 윤아의 팔 속에 있는 것에 적면해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소녀는 만족스럽게 눈동자를 닫았다.

## [Phase.3] 금단의 야외 배변

동굴 입구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에, 크레스트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어젯밤의 격렬한 비가 거짓말처럼 하늘은 흘롱할 때까지의 쾌청에 싸여 있다.

비에 씻겨진 숲의 공기는 깨끗하고, 초목의 녹색은 한층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응.....후...

"안녕하세요, 크레스트 ♪ 푹 자고있는 것 같네요?"

윤아는 이미 신지도를 마치고 있어 모닥불의 흔적을 정리하고 있었다.

크레스트도, 조금 몸의 마디에 딱딱함을 느끼면서도, 일어서 자신의 케이프를 입는다.

남자 특유의 야간 남근 발기 현상, 즉 쇼트 팬츠 안에서 아침 발기하고 있는 작은 성기를 걸고 천으로 숨기고 있지만, 유나는 크레스트가 일어나기 전에 확실히 보고 있었다.

그러나 출발 준비를 마련하고 있는 동안, 크레스트는 어떤 중대한 생리적 욕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 ... 좋지 않다. 어제 밤부터 계속 참고 있었지만..... 이제 한계...

크레스트는 주위를 교로교로로 바라보고, 침착하지 않은 모습으로 꼬리를 소와소와와 흔들기 시작한다.

"이봐,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그렇게 소와소와해"

「엏!?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저쪽의 풀무라로 지형을 확인해 오는 것 뿐!」

「헤에—, 지형의 확인이네♪」

윤아의 포함이 있는 미소를 등에 받으면서, 크레스트는 탈토와 같이 덩불의 안쪽으로 사라져 갔다.

여러 부분으로 나눈 후에.

깨끗이 한 얼굴로, 그러나 어딘가 바투가 나쁘게 옆드려 경향이 돌아온 크레스트에, 유나는 직구의 질문을 던졌다.

「이봐, 그러고 보니. 크레스트, 화장실의 『대』는 어땠어?」

「부.....!?」

크레스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살아 오른 문어처럼 새빨갈게 물들었다.

「뭐, 뭐를...

「그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네♪ 이런 숲 속이야. 아, 혹시...

「하고,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 나가 그런, 야만적인 일을 할 수 없겠지!」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크레스트였지만, 그 격렬하게 흔들리는 꼬리와 헤엄치는 시선이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하하! 도성이다! 천재 소년의 크레스트군이, 밖에서 똥 버렸어! 부끄러워-♪」

「으..... 으, 우우...

오픈되듯이 외치는 크레스트에 대해 윤아는 자신있게 집게 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나는 그런 야만인 일 하지 않아? 나에게는 이것, 『마도 배변 탱크』가 있는 것♪」

「...」

「그래. 며칠분의 배설물을 마법으로 직장으로부터 이차원의 스토리지에 워프시켜 축적해 두는 거야. 나중에 거리에도착했을 때, 정리해 처분할 수 있어.

크레스트는 충격이 너무 많아 입을 둥글게 열어 굳어졌다.

「즈, 시끄러워！！ 무슨 그것！？ 어째서 그런 바보 같은 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

「에—? 여행의 필수 마법이지...

「... ... 어, 그, 그런, 그런...

여행을 재개하고 나서도, 윤아의 용서 없는 말의 왕따는 계속되었다.

"이봐, 크레스트. 조금 전의 장소, 제대로 숨겼어? 다른 동물이 밟으면 가해상이야?"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말하고 있겠지...

「아하는,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좋지 않아♪ 하지만, 밖에서 밟고 있을 때의 크레스트의 얼굴, 상상하는 것만으로 웃어버린다.

「우, 시끄럽다...

「천재 소년의 직함이 울어 버리는군요♪『학원의 두뇌』 다시 한번,『숲의 배변왕』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노라 똥 제조기』가 좋다?」

윤아의 입에서 차례차례로 꺼내지는 굴욕적인 문구에, 크레스트의 정신은 짝 찢어져 간다.

「끔찍해... ... 거기까지 말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크레스트의 큰 눈동자에 눈물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에-, 정말 진짜가 아니야♪ 밖에서 똥을 하다니, 마치 훈련되지 않은 강아지 같아? 아, 혹시, 엉덩이를 닦을 때도 꼬리가 방해로 힘들었던 것일까?"

「우우...

마침내 견딜 수 없게 된 크레스트의 눈으로부터, 큰 곡물의 눈물이 넘쳐났다.

그는 얼굴을 덮고 딸꾹질을 올리면서 힘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 ... 아, 저기?」

윤아는 헛으로 다리를 멈췄다.

평소와 같이 나まい키인 태도를 무너뜨리고, 귀엽게 울음소리를 씹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말 책임은 조금만도를 넘어 버린 것 같았다.

프라이드의 덩어리인 그를 생리현상이라는 도망가지 않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바보로 너무 했던 것이다.

".....미안, 크레스트.

윤아는 발가락이 나쁘게 뽀뽀를 굶고, 울어버리는 작은 등에, 폭신폭신했고 손을 뻗었다.

「... ... 정말로 미안해?

「... ... 우우, 흠... ...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하는 크레스트의 모습을 보고 윤아는 진심으로 반성했다.

아무리 조련된 장난감이라고는 해도, 지금은 소중한 여행의 파트너인 것이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껴안고, 그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잠시 동안 그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 [Phase.4] 심록의 미궁, 조용한 시련의 개막

눈물을 닦아, 짹짹 코를 울리면서도, 크레스트는 어떻게든 일어섰다.

윤아에게 안겨 머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수치심과 교환에 조금만 마음의 물결이 진정된 것이다.

「...」

「아하하, 알았어. 이번부터는 제대로 손 가감하네♪」

윤아는 굴탁이 없는 미소로 대답해, 크레스트의 얇은 손을 당겨 다시 걸어냈다.

두 사람은 한층 더 숲의 심부로 나아갔다.

거기는 이미 지도에도 상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답의 영역이었다.

수령 수백 년을 세는 거목이 늘어서, 그 뿌리는 복잡하게 얽혀, 마치 생물처럼 땅을 기어 다니고 있다.

「...」

크레스트가 진홍의 고양이 귀를 정확하게 움직여 주위를 경계하도록 보았다.

「응, 그럴네. 조금 전의 동물들의 기색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윤아도 또한 평소의 농담을 봉인하고 유연한 육체를 전투 태세로 이행시킨다.

이윽고 두 사람 앞에 있는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다.

그 절벽의 기슭, 얽히는 덩굴과 이끼로 덮인 장소에, 부자연스럽게까지 정교한 석조의 문이 진좌하고 있었다.

「이것은... .. 천연의 동굴이 아니지.

크레스트는 안경의 정도를 맞추도록 눈을 가늘게 하여 문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 ..」

「미궁!

윤아는 눈동자를 황색으로 빛내고 주먹을 파창으로 울렸다.

크레스트는 신중하게 마도 지팡이를 짓고 문에 마력을 흘린다.

즈즈쑈...

문 안쪽에서는 서늘한, 그래서 마력의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바람이 뿜어져 온다.

「...」

"물론 ♪ 전략은 크레스트에 맡길거야. 나는 크레스트를 해치려고 하는 나쁜 아이들을 꼭 부치의 암컷 담당이야!"

윤아는 믿음직하게 가슴을 펴고 크레스트 옆에 늘어선다.

미궁의 내부는 밖의 빛이 닿지 않는데도 벽면에 부착된 발광 이끼에 의해 옅은 청록색으로 비추고 있었다.

안의 복도는 넓고, 천장도 높다.

하지만, 그 바닥에는 교묘한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멈춰, 윤아. 3보 앞 타일에 중력 감지 마법진이 있다"

"죄송합니다.....위험한 위험.

"... 아침은 필요 없어. 나의 계산에 의하면, 이 미궁은 계층마다 다른 속성의 시련이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1층째의 광장에 도착하면, 거기에는 복수의 골렘이 기다리고 있었다.

돌로 구성된 거구가 침입자를 배제하지 않고 뻗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윤아, 왼쪽의 3체를 말킨다! 나는 오른쪽의 2체의 관절 부분에 약체화 마법을 두드려!」

「알겠어, 리더♪」

윤아는 총알과 같은 속도로 뺨아 골렘의 회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돌의 몸통을 분쇄하고, 파편이 사산한다.

한편, 크레스트는 정확하고 무비한 마법제어로 골렘의 움직임을 봉해, 윤아가 공격하기 쉬운 상황을 순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학원 제일의 두뇌와 학원 제일의 폭력.

그 2개의 재능이 맞물렸을 때, 미궁의 수호자들은 차례차례로 먼지로 돌아갔다.

「후우...

「... ... 뭐.

크레스트는 조금만 자랑스럽게, 그러나 나마이키인 말투를 무너뜨리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만큼 넓은 미궁이다. 공략에는 며칠이 걸릴지도 모른다. 식량과 마력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괜찮아♪ 우리의 『마도 배변 탱크』...

「... ...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하하! 미안, 미안해♪」

미궁의 심연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앞두고 두 사람은 다시 시선을 나눴다.

여기에서 먼저는 더욱 가혹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두 사람은 서로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조금만의 의지악한 장난기)가 있다.

「갈거야, 윤아

「응, 가자! 크레스트♪」

푸른 하얀 빛으로 가득한 미궁 안쪽으로 소년과 소녀의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천재 소년의 지략과 최강 소녀의 폭력.

두 사람의 진정한 모험은 이 폐쇄된 옛 성역에서 지금 바로 가속하기 시작했다.

미궁의 벽에 새겨진 낡은 문장이 두 사람의 통과를 축하하는 것처럼 한순간만 미미하게 명멸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1 페이지가 새겨지기 시작한 신호이기도 했다.

「이봐, 크레스트. 만약 미궁의 안쪽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무엇을 원해?」

「.....나는, 잃어버린 고대의 마도서일까. 너는?」

「나는 말이지...

「...

「아하하! 그렇게 말해, 사실은 내가 없으면 외로운 주제에♪」

그런 경구를 두드리면서도 두 사람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미지의 미궁의 공략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얻어, 그들의 유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굴욕적인 추억을 연료로 해, 보다 견고한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었다.

## [Phase.5] 보물 상자 트랩 죄송합니다! 금적 펀치!

미궁의 제1계층.

골렘들의 잔해가 조용히 마력의 먼지로 돌아가는 가운데, 광장의 안쪽에 진좌하는 중후한 장식의 보물상자가 푸른 흰 빛을 반사해 수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했어, 크레스트! 최초의 시련을 돌파한 보상이야♪」

윤아는 전투의 여운으로 조금 쾌활한 얼굴을 빛내, 경쾌한 스텝으로 보물상자로 다가간다.

「기다려, 윤아! 이런 노골적인 보물상자에는, 9할 이상의 확률로 어떠한 방위 기구...

크레스트는 보물 상자에 대한 기대를 억제하도록 가슴의 케이프를 손가락 끝으로 만지면서 해석 렌즈를 기동했다.

「괜찮아♪ 함정의 해제도, 나의 특기분야니까. 자, 봐줘」

윤아는 자신 만만하게 보물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가는 손가락 끝을 열쇠 구멍으로 미끄러지게 한다.

그녀는 감각을 갈고 맑게 하고, 내부의 기어의 움직임을 마력으로 읽어 간다.

찰칵, 딸깍, 정밀한 금속음이 조용한 광장에 울려 퍼진다.

크레스트는 고침을 삼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렌즈에 비치는 마력 회로가 갑자기 붉게 변색한 것을 깨달았다.

「윤아, 좋지 않아! 그것은 이중 반전식의 위장 회로다! 만지면 안 된다...

「엣? 아..... 어!」

윤아가 손가락을 당기려고 하는 순간, 보물 상자의 밑면에서 가곤! 라는 불길한 중저음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 금적 펀치 머신이다!

순간, 보물 상자의 정면이 기세 좋게 튀어 날아, 거기로부터 스프링 장치의 거대한 철권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보물상자를 열려고 한 사람의 가랑이를 정확하게 쏘기 위해 설계된, 고대의 악의의 결정——『금적 펀치 머신』이었다.

「까!?!」

윤아는 학원 제일의 신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공중에서 신체를 비틀도록 하여 그 철권의 궤도로부터 이탈한다.

하지만 그 배후에 있던 것은, 해석에 열중해 무방비에 서고 있던 크레스트였다.

「엣.....? 아.....」

도보!!!!

둔하고 무거운 고기와 철이 격돌하는 소리가 미궁에 목령했다.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사출된 철권은, 크레스트의 얇은 허벅지 사이, 그의 소중한 급소로 곧게 찔렸다.

얇은 팬티와 타이트한 반바지 너머로, 부드러운 고환이 무자비하게 압류된다.

「그, 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크레스트의 입에서 대략 인간이 낼 수 있는 한 절규가 새어 나왔다.

충격은 가랑이에서 척수를 뛰어 올라 뇌천을 뚫고 복부의 깊은 곳으로 '주신'이라는 낯과 같은 심한 둔통을 심는다.

크레스트는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그 자리에 무너졌다.

「으, 우아아아...

그는 양손으로 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밀어 넣고, 지면을 휩쓸었다.

안면은 순식간에 토기색이 되어, 이마로부터는 큰 땀이 뚝뚝 떨어진다.

격통의 너무 호흡하는 법을 잊고, 히, 히, 와 짧은 끌어당기는 것 같은 목소리를 흘린다.

「아, 아아아아... ... 오, 배가... ... 배가 아파...

금적 특유의 내장을 직접 잡아내는 듯한 메스꺼움을 동반한 통증이 파도처럼 여러 번 그를 덮친다.

瑠璃色の 케이프가 진흙 바닥에 더러워, 자랑스러운 고양이 귀는 힘없이 늘어져, 얇은 꼬리는 격통의 너무 핀과 직립한 채 소각에 떨어지고 있었다.

"와, 와와! 미안 크레스트! 괜찮아!? 괜찮지 않아, 미안!"

윤아가 당황해서 달려가, 지면을 굴러다니는 크레스트의 등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 만지지 마..... 어! 오지 마...

크레스트는 윤아의 손을 털어낼 여유조차 없고, 단지 가랑이를 응축하도록 동글게 되어, 기절해 계속했다.

학원의 천재, 장래를 촉망받는 젊은 마법사가 지금은 금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1명의 소녀 앞에서 무사히 가랑이를 누르고, 눈물과 콧물로 얼굴을 엉망으로 하면서 굴러가고 있다.

그 광경은 너무 무잔했고, 어딘가 활주조차 있었다.

몇 분이 경과해 드디어 격통의 제1파가 떠났다.

크레스트는 구르는 것을 그만두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여전히 양손으로 가랑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하아... ... , 하아...

거친 호흡이 조용한 미궁에 울린다.

아직 하복부에는 둔한 철의 덩어리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은 불쾌한 무게가 남아 있다.

하지만 아픔이 끌려가는 것과 바뀌듯이 맹렬한 '수치심'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그의 몸을 굽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올리면, 거기에는 걱정할 것 같지만, 어딘가 「봐서는 안되는 것을 봐 버렸다」라고 하는 미묘한 표정의 윤아가 있었다.

「... ... 크레스트, 조금은 침착했다?」

「.....」

크레스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얼굴이 방금 전의 격통과는 다른 이유로, 폭발할 만큼 붉게 물들어 간다.

(여자에게... ... 윤아에게..... 나의 소중한 곳을...

프라이드.

그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해 온 지성 있는 마법사로서의 자존심이 이 일격으로 흔적도 없이 분쇄되고 있었다.

윤아에게는 이전에 엉덩이를 강초로 흠어져, 심지어 관장까지 하는 똥을 새는 궁극의 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금적」이라고 하는 사고는, 그것과는 또 질이 다른 굴욕이었다.

남자로서의 급소를 물리적인 흥기로 파괴되어 그것을 라이벌인(혹은 천적이다) 소녀의 앞에서 노출해 버리는, 생물로서의 근원적인 패배감.

".....보지마"

크레스트는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엣? 그렇지만, 식히는 것이 좋지 않아? 나의 회복 마법으로...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겠지...

크레스트는 눈물이 흘려진 눈동자로 윤아를 노려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통증에 대한 분노보다 드러난 약점에 대한 비통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아아..... 최저다. 나는 참 비참할 것이다. 엉덩이를 강패 되고, 밖에서 똥을 시키고, 이번은 이것이다...

그는 양손으로 가랑이를 누른 채 얼굴을 덮었다.

숏팬츠의 가랑이 부분이, 압박에 의해 조금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스스로도 알 수 있다.

그것이 더욱 그를 절망시켰다.

「...

윤아의 목소리는 상냥했다.

하지만 그 상냥함이 지금의 크레스트에는 칼날처럼 찌른다.

동정되고 있다.

학원 제일의 힘을 자랑하는 소녀에게, 가랑이를 쳐 울고 있는 자신을 「가려운 소년」으로서 보여지고 있다.

「...

자조적인 말이 입을 따라 나온다.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지고 푸른 이끼를 적시었다.

「그런 건 없어!

윤아는 그렇게 말하고 크레스트 옆에 앉고 살짝 그의 어깨에 손을 뒀다.

「...

윤아의 따뜻한 손이 떨어는 크레스트의 몸을 감싼다.

크레스트는 아직 가랑이로부터 손을 뗄 수 없다.

진진으로 한 여운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면 복근에 격통이 달릴 것이다.

하지만 윤아의 따스함을 접하고 있는 사이에, 신기함과 마음의 안쪽에 있는 도게토게로 한 수치심이, 조금씩 녹아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 ...윤아」

「뭐야?」

「... ... 지금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아하하, 알고 있다고♪ 이건, 둘만의 비밀. 대모험의 『아픈 추억』 제1호군!」

윤아의 밝은 목소리에 크레스트는 작고 정말 작고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가랑이는 바삭바삭하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올릴 수도 없다.

어쩌면 어디의 소녀와 함께 걸어가는 여행은, 이러한 무고한 모습조차도 공유해 나가는 것으로, 보다 깊은 장소로 연결되어 갈지도 모른다.

「...

크레스트는 떨어는 다리에 힘을 담아 가랑이를 한 손으로 가드한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 모습은 변함없이 무사하고 활기차며, 어쩔 수 없이 '윤아의 파트너'다움으로 가득했다.

미궁의 깊이.

소년과 소녀의 유대는 일발의 철권과 넘치는 눈물에 의해, 또 한층 이상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가는 것이었다.

보물 상자에는 동전 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 [Phase.6] 좌악

미궁의 제1계층을 한층 더 안쪽으로 나아간 두 사람은 부자연스럽고 조용한 공간에 도착했다.

거기는 고대의 마도사들이 명상에 사용했다고 여겨지는 작은 방으로, 주위에는 강력한 정화 결계가 둘러싸여 있어, 마수의 침입을 일절 용서하지 않는 안전지대가 되고 있었다.

「... ... 하아, 하아...

크레스트는 아직도 가랑이를 한 손으로 망설이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인 채 벽에 힘없이 허리를 내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푸르스름하며, 그 이마에는 통증을 견디기 위한 지한이 땀을 흘리고 있다.

「그렇네. 하지만 크레스트, 그대로라면 내일의 탐색에 울려 버려?

윤아는 진지한 표정을 꾸미고, 짐 안에서 작은 가죽 파우치를 꺼냈다.

그 중에는 학원의 고도의 연금술에 의해 정제된 옥색의 빛을 발하는 「특수한 약」이 들어가 있었다.

「염증...

「안돼. 성기라고 하는 말이야, 마력의 순환이 빠지기 쉬운 급소인거야. 방치하면 마력 회로가 유착하고, 최악의 경우, 일생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있어?

「엣.....!?

윤아의 데타라메한 이굴에, 천재 소년의 냉정한 사고 회로가 공포로 흐리기 시작한다.

그는 마법이야말로 자신의 존재의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잃을 가능성을 제시된 것만으로, 이성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치료해 줄게....

「뭐, 뭐를... ... 뭐라고 말하고 있어!

「치료야. 이것은 경구 섭취로는 효과가 없어. 직접, 환부에 가장 가까운 점막으로부터 성분을 흡수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즉, 좌악이군요♪」

윤아의 손에는 부드러운 젤에 싸인 부드러운 총알 모양의 좌악이 쥐고 있었다.

「자, 좌악...

「스스로 정확한 위치에 넣을 수 있는 거야? 마법 회로의 결절점에 딱 맞춰야 하지?

「바, 폭발...

더 이상 윤아의 말은 협박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고통에 약해 정신적으로 몰아넣은 크레스트에, 그것을 부정하는 방법은 없었다.

「... ... 와, 알았다.

굴욕에 얼굴을 왜곡하면서 크레스트는 떨리는 손으로 갈색의 케이프를 벗고 타이트한 검은 반바지의 벨트를 풀었다.

이미 윤아에게는 학원내에서 흩어져 있던 크레스트의 생 엉덩이. 하지만 자신으로부터 엉덩이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부끄러움이 있었다.

「...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천이 인하되어 간다.

드러난 것은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에 싸인 몸집이 작은 소년의 섬세한 엉덩이였다.

「... ... 으으, 부끄럽다...

크레스트는 눈물을 모아 얼굴을 팔 속에 묻으면서 무방비한 등을 윤아에게 향했다.

윤아의 시선이 먹이를 바라보는 짐승처럼 날카롭고 뜨겁게 변화한다.

얇은 서류도 무릎 아래까지 끌어당겨져 거기에는 완숙한 과실처럼 둥근 엉덩이가 차가운 외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중앙에 조용히 자리 잡은, 굵힌 채의 얇은 홍색의 향문.

그곳은 한때 윤아의 강초와 관장에 의해 유린되어 헤아릴 수 없는 욕을 받아온 곳이다. 이번에는 좌약.

「후후, 매우 깨끗해요, 크레스트♪ 그럼 시작하네요. 우선 점막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마법약을 발라요」

「헉...

윤아의 손가락 끝이 듬뿍 윤활 젤을 따라 크레스트 향문 주위를 쓰다듬었다.

누차, 누추라는 비추한 점착음이 조용한 방에 울려퍼진다.

「아, 아아...

"안돼. 입구가 딱딱하다면 약이 들어갈 때 크레스트가 아파 버릴까요? 자, 힘을 빼고...

윤아는 용서 없이 젤이 붙은 손가락을 향문의 한가운데에 밀어붙였다.

「응, 응うう...

크레스트의 신체가 비쿤과 크게 뛰었다.

손가락 끝이 움푹 들어간 고기의 고리를 무리하게 밀어 펼쳐...

즈릉.....!

「하왓!？」

윤아의 손끝이 뜨거운 향문 속으로 침입을 시작한다.

즈츄... ... 즈부...

「아, 아아아아...

「후후, 좋은 느낌에 잠겨 있네요♪ 자, 여기가 마법의 결절점이야」

윤아는 일부러 전립선의 가까이를, 손가락 끝으로 고릿하게 쓸도록 자극했다.

「히기아!? 뭐, 뭐야... ... 지금...

크레스트의 꼬리가 미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가랑이 사이의 금적인 통증마저도, 그 강렬한 위화감에 의해 칠해져 간다.

「그럼, 실전이야. 좌약을 넣네.....그래!」

퐁!

「응!？」

윤아는 손가락을 한번 빼내자 이번에는 비취색의 좌약을 손가락 끝에 더해 단번에 안쪽으로 찔렀다.

누뽕!!

「아구,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크레스트의 등이 활 나뭇잎으로 휘어져 항문이 이물질을 무리하게 삼켜지는 감각에 그는 절규했다.

좌약은 윤아의 손가락의 뿌리까지, 최단 거리에서 크레스트의 직장 심연으로 보내졌다.

「하아... ... 하아...

「확실히 괄약근을 조여 줘?

「으, 우우...

크레스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필사적으로 엉덩이 구멍을 꼭 조여 좌약이 역류하지 않도록 견뎌냈다.

윤아는 만족스럽게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가락에 남은 젼을 페로리와 핥았다.

「아하하♪ 잘 열심히 했네, 크레스트. 이것으로 내일 아침에는, 금적의 통증도 깨끗이 잡히고, 똥도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

「... ...으, 똥의 이야기는, 지금 하지 말아...

결계에 지켜진 안전한 방에서, 소년은 가랑이의 둔통과 엉덩이에 꽂힌 좌약의 위화감, 그리고 참기 어려운 수치심을 느끼면서, 긴 밤을 보내게 되었다.

미궁의 공략은 아직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략과 폭력 그리고 '교육'의 여행은 더욱 깊고 어둡고 감미로운 영역으로 발을 디딘다.

## [Phase.7] 미궁의 각성과 맹렬한 편의

미궁의 조용한 공기를 찢는 것처럼, 마도 시계의 무기질적인 알람이 울렸다.

크레스트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자신이 아직 고대 명상실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어젯밤 윤아에 의해 억지로 삼입된 비취색의 좌약은, 그의 배 안에서 천천히 녹아, 그 약효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다.

「응.....후...

잠자리를 치는 순간, 어제까지 그를 기절시키고 있던 금적의 둔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유석은 학원이 자랑하는 연금술의 결정이다.

그러나 고통이 당긴 대신에 그는 또 다른, 더 절실하고 강렬한 "예조"에 습격당했다.

(..... 어!?, 뭐야, 이...

그건 어제의 야외 배설 등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후하고 도망가지 않는 편의였다.

좌약에 포함되어 있던 성분에는, 근육을 이완시켜 혈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의 활동을 극한까지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윤아의 구조한 「놀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크레스트 ♪ 안색이 매우 좋은 것 같네요. 약, 제대로 효과가 있었죠?"

윤아가 쾌활한 목소리를 높여 가볍게 튀어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은 크레스트가 필사적으로 괄약근을 조여 몸부림치고 있는 허리 근처에 쏟아지고 있다.

「유, 윤아...

크레스트는 양손으로 하복부를 안고, 땀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지금 어딘가로 달려가고 싶다.

하지만, 여기는 사방을 견고한 석벽으로 둘러싸인 미궁의 내부다.

어제 같은 덩불도 없으면 몸을 숨길 수 있는 큰 바위도 없다.

「어떻게 된 거야? 또 배가 아파일까? 아니면...

「뭐.....! 그런,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

「아하, 숨기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유감이었어.

윤아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지 나쁘게 크레스트의 엉덩이를 배후로부터 품과 두드렸다.

「히기야!? 야, 그만뒀...

두드려진 충격으로 장내 똥이 항문 바로 뒤쪽으로 밀려나서, 크레스트의 고양이 귀가 격렬하게 경련했다.

(줄지 않다...

크레스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지만, 1걸음 났을 때마다 엉덩이의 안쪽에서 똥이 밖으로 나가려고 격렬하게

주장한다.

윤아가 어제 말했던 『마도 배변 탱크』만 있으면 이런 굴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무작위로 가랑이가 되면서, 프라이드의 조각을 잡고 걷기를 진행하는 것만이었다.

「이봐 크레스트,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날이 살아 버릴거야? 자, 차분히 걸어!

「음, 무리를 말하지 마라...

「흠. 그럼, 내가 뒤에서 지지해 줄까? 자, 이렇게 ♪」

윤아는 웃음과 함께, 크레스트의 얇은 허리를 뒤에서 껴안도록 밀착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크레스트의 등에 부딪혀 동시에 그녀의 손이 그의 뺑뺑에 붙인 하복부를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히 압박한다.

「아, 아아...

"에-? 여기가 괴로워요? 자, 마사지 해 줄게♪ 규, 규, 라고"

「응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크레스트의 보라색 눈동자에 다시 눈물이 모이기 시작한다.

미궁의 복도에는 그의 필사적인 거절의 목소리와 배가 쿼르쿨로 울리는 한심한 소리가 반향하고 있었다.

주위에 차폐물은 일절 없다.

한길의 복도를 자신을 괴롭히고 즐기는 소녀와 밀착하면서 걷는다.

더 이상의 지옥이 있을까.

「자, 크레스트.

「.....윤아의...

크레스트는 엉덩이의 구멍을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굳게 닫고, 푸르푸르와 떨면서, 1보 1보, 끝없는 복도를 진행해 갔다.

학원의 천재 소년의 존엄은, 지금 바로 1장의 얇은 서류와, 윤아의 새디스틱한 손바닥 위에서, 바람 앞의 등화가 되고 있었다.

「아, 보고 크레스트! 저기 모퉁이를 구부리면, 조금 넓은 작은 방이 있어♪

「에.....!? 호, 진짜...

절망 속에 담은 일근의 빛.

크레스트는 마지막 힘을 휘두르고, 가랑이 그대로 소주행으로 모퉁이로 향했다.

하지만, 그것이 윤아의 새로운 「놀이」에의 초대임을, 지금의 그에게는 알 수 없었다.

각을 구부린 앞.

거기에는 확실히 작은 공간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미궁의 수호자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 ... 엇. 그, 그런... ...」

눈앞에는 거대한 날개를 가진 가고일이 바위의 동상에서 움직이고 날카로운 눈빛을 발하고 있다.

격렬한 편의.

도망가지 않는 작은 방.

그리고 다가오는 강적.

크레스트의 향문을 조이는 힘은 공포와 초조로 한계를 돌파하려고 했다.

「자, 크레스트! 싸움의 시간이야♪」

윤아의 순진한 목소리가 몰린 소년의 마음에 비정하게 울렸다.

「으, 우아아아아...

크레스트는 떨리는 손으로 마도 지팡이를 세웠지만, 힘을 넣을 때마다 장이 격렬하게 물결치고, 엉덩이의 구멍으로부터「푸웁」라고, 작지만 결정적인 공기가 새어 나왔다.

그의 얼굴이 절망과 수치로 새빨갈게 물든다.

대모험 2일째.

천재 소년의 싸움은 말 그대로 '몸을 깎는' 같은 극한 상태로 돌입해 갔다.

## [Phase.8] 편의를 참으면서 한계 배틀

미궁의 석벽이 크레스트의 거친 호흡을 냉혹하게 튕겨낸다.

눈앞에 가로막는 가고일은 침입자를 분쇄하지 않고 그 거구를 쫓아 날카로운 돌의 발톱을 바닥에 몰아넣고 있었다.

본래라면, 크레스트의 지략이 있으면 1분도 걸리지 않고 무력화할 수 있는 상대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마법을 구축하기 위한 정신적인 여유 등, 이 같은 곳도 남겨지지 않았다.

「그....., 우우...

크레스트는 내 가랑이를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밀착시켜 자신의 반바지의 천을 잡을 수 있도록 허리를 꺾고 있었다.

창자의 깊은 곳에서는 비취색의 좌악에 의해 강제적으로 생성된 중후하고 열을 띤 편의가 노도의 기세로 향문으로 밀려들고 있다.

쿠루루루, 규루루루!!

조용한 전투 개시 전 사이에, 크레스트의 복부로부터 한심한 소리가 울린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지적인 말로 분식하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야생적인 배변의 요구였다.

"아하하, 크레스트! 얼굴이 새빨갳을 지나 보라색이야♪ 자, 빨리 그 아이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싸우고 있는 도중에 브리브리라고 나 버려?"

윤아는 가고일의 공격범위 바로 바깥쪽으로 즐겁게 손가락을 짜면서 관전하고 있다.

그녀의 시선은 크레스트가 필사적으로 조이고 있는 엉덩이의 균열, 그 타이트한 검은 반바지가 한계까지 좁혀져 있는 부분에 못박았다.

「유, 윤아... ... , 웃지 말고, 도와...

"에-? 그런 곤란하구나♪ 학원 제일의 천재가, 가고일의 앞에서 오해해, 그대로 똥마미레로 저 버리다니, 전설이 되어 버려?"

「우, 시끄럽다...

갑자기 습격해 온 과거 최대의 편의의 물결에, 크레스트의 시야가 새하얗게 물든다.

항문의 괄약근이 자신의 의지를 배반하고 약간 느슨해져 뜨거운 공기와 수분을 땀 대변이 출구 바로 바깥쪽을 딱딱하게 두드렸다.

가고일이 짚어 바위 주먹을 쏘아 올린다.

「... ... 어, 방어, 실드...

크레스트는 울기 듯한 얼굴로 지팡이를 흔들었지만, 마법을 발동시키기 위한 마력의 반죽이, 복부에의 힘에 의해 현저하게 저해된다.

마법진은 형태를 이루기 전에 안개를 뿌리고 가고일의 맹공이 그의 바로 옆의 바닥을 분쇄했다.

「히기야!? 이, 무서운...

그는 공포에 의한 공황과 생리적인 극한 상태의 판 사이에 걸려 마침내 그 자리에 헤어나와 앉았다.

「우와아아! 윤아의 바보! 괴롭다! 벌써 싫다, 이런거!!」

마침내 크레스트는 눈길을 끄지 않고 큰 소리로 울었다.

자주색 눈동자에서는 큰 곡물의 눈물이 넘쳐 뺨을 전해 더러운 바닥으로 떨어진다.

「나... ... 나, 이제 무리야...

윤아는 만족에 눈을 가늘게 하고, 천천히 크레스트의 바탕으로 걸어 다녔다.

"후후, 드디어 관념했구나, 크레스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숨어 똥 짓다니, 그런 지금의 크레스트에는 너무 사치스럽다"

윤아는 앉은 크레스트 뒤로 돌면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대고 뜨거운 한숨을 불었다.

「좋아, 여기에서 내버려놔야. 내 눈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전부 보여줘. 그러면, 도와줄 테니까♪」

「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크레스트는 엉덩이의 구멍을 꺾 꺾 조이려고 했지만, 그때, 배의 안쪽에서 「즈신」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편의가 달렸다.

좌약의 성분이 완전히 장벽을 자극해, 모든 모인 변이, 항문이라고 하는 유일한 해방을 요구해 한마디가 되어 돌진해 온 것이다.

미치, 미치 미치...

타이트한 반바지의 가랑이 부분이 안쪽에서 밀려오는 강대한 압력에 의해 팬팬에 부풀어 오른다.

「아..... 어, 아.....

크레스트는 얼굴을 새빨갳게 하고, 하얀 눈을 벗겨내면서,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괄약근의 저항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엉덩이의 구멍은 무자비하게도 천천히, 그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아하하! 팽창해 왔어♪

윤아가 환희의 목소리를 올린 그 순간.

——크레스트의 체내의 제방이, 소리를 내어 붕괴하려고 한다. 그러나.....

## [Phase.9] 변의 봉인 강초

크레스트의 척추에 전격과 같은 떨림이 달렸다.

엉덩이의 구멍이 자신의 의지를 배신하고 뜨거운 편을 세계로 풀어내려고 무자비하게 느슨한 그 순간.

「——지금이야, 크레스트♪『강초』!!」

윤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미궁의 공기를 떨렸다.

체험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면 계속되는 제품판도 읽어 주시면 기쁩니다.